

원주지역에서의 유기농업 활동과
협동조합 역할과의 관계 연구*
- Delphi Technique을 활용한 인식조사 -

최 덕 천**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c Agriculture
Activity and Cooperatives Role in Wonju
- Utilizing Delphi Technique -

Choi, Deog-Cheon

This study started with two questions. The first question is ‘Why does organic agriculture want to be linked with cooperative?’ The second is ‘What is the characteristics of th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organic agriculture and cooperative?’, especially in Wonju. Up to now, there have been various kinds of discussion about cooperation between organic agricultural campaign and cooperative in Wonju. But there are few concrete data showing what role cooperative plays in the cyclical process of production -distribution-consumption of organic agriculture. Thus, we conducted a survey applying the Delphi technique to the 35 organic agricultural specialists active in Wonju. First, small-scale family farm producers established a social economic cooperative network in around 2003 to perform ‘the activities of innovators’ through forming an organization. Producers moved from the stage in which they were supported one-sidedly by consumers to the stage where they could ‘lead’ cooperation. Each farm organization built a vertical integration, and horizontal cooperative systems with other farm organizations. But, practical cooperative activities have remained in the doldrums. They tend to show trends deviating from the principles of organic agriculture and cooperative.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producers and consumers in Wonju can be described as ‘producer-consumer cooperative type’. In Wonju, the producers’ organization is not a sub-contractor which simply deliver organic agricultural products to producers’ cooperative, but is an equal subject which creates its own value chain. The cooper-

* 이 논문은 2014년도 상지대학교의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된 것입니다.

** Corresponding author, 상지대학교 교양과 부교수(cdc@sangji.ac.kr)

ative (cooperative organization) leads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organic agricultural products and mutual communication. But, the closeness between producers and consumers has got loosened. And, it is problematic that the proportion of local food consumption in Wonju is very low. There is a very strong tendency to ride the central distribution system of producers' cooperative coalition. Consequently, it is necessary for producers' cooperatives in Wonju to run a local food distribution system based on the 'cooperative system among cooperatives'.

Key words : *organic agriculture, cooperatives, delphi technique, vertical integration, horizontal cooperative, producer-consumer cooperative type*

I. 서 론

현 단계 우리나라의 협동조합과 유기농업 부문은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쟁 압박과 정부의 지원정책 중간지대에서 관행화·기업화·상공업화라는 정체성 논란에 처해 있다. 그 근본요인은 운동과 경영, 원칙과 시장 간의 불협화음이라고 할 수 있다. 유기농업이나 협동조합 연대조직에서 발생하는 내부 갈등, 경영어로 문제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상황을 생각하면서 원주지역을 분석 사례로 선정하였고, 두 가지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였다. 하나는 유기농업은 관행농업과는 달리 왜 협동조합과 연대하려고 하였고, 어떤 방식으로 협동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지금 서로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협동조합운동과 유기농업운동의 선진지역 중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원주지역에서는 앞서 제기한 정체성의 위기 상황과 무관한지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현 단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찾아보려는 것이다.

유기농업과 협동조합은 공히 '원칙'을 중시하는 대안경제적 활동양식이다. 두 부문의 경제순환활동 원칙에서 공통적인 요소는 바로 '지역'이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유기농업의 관점에서 보면 로컬 푸드(local food)이고, 협동조합의 관점에서 보면 지역 공동체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두 부문은 오래 전부터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해 왔다.

그 동안 협동조합이나 유기농업 분야를 포괄한 융합 연구가 많이 이뤄져 왔다. Oh(2010)는 글로벌 경제하에서 유기농업 위기의 대안으로 지역사회지원농업(CSA)을 들었고, 대표적 실천 사례로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의 활동을 들고 있다. Yoon (2010)과 Yoon과 Song (2014)은 그 동안 유기농산물 유통을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많은 역할을 하였지만 또 다른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지역에서 생협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지원농업(CSA)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순환형 농업시스템을 확립하기를 권고하였다.

최근 들어 원주지역에서의 유기농업 운동, 협동조합 간 협동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Woo (2009)는 이중 협동조합 간 연대를 위한 원주지역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의 발전과정과 지역 공동체 운동의 실태를 현장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Choi (2011)는 원주지역 유기농업과 협동조합의 융합체인 사회적 경제 조직화의 구조를 정리하면서 조심스럽게 지역 공동체협동농업(Community Cooperative Agriculture)이라는 대안적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지금은 원주지역의 유기농업과 협동조합 운동을 그 상호관계 속에서 양적 확장과 질적 심화의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하는 전환기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을 통한 생산자 소득보장의 한계, 농업인 고령화, 유기농업에 대한 가치관 혼란, 지원정책의 변화 등의 현실 속에서 유기농업의 생산-유통-소비의 순환과정에서 협동조합이 지역 공동체의 핵심 조직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서로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기로 한다.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체계적인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대체방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기농업 생산과 가공, 협동과 순환시스템의 전방연관부문인 유통과 소비부문, 지원후견조직의 현장 전문가 총 35명을 대상으로 한 Delphi 조사법을 활용한다.

보통 친환경농업과 유기농업은 의미가 상당히 다른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유기농업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협동조합은 매우 다양한 조직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 주된 대상이며, 최근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도 일부 포함하였다. 또한 원주지역의 특성상 유기농업과 연관 있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과 같은 협동조직도 협동조합은 아니지만 논의의 대상에 일부 포함하기로 하였다. 또한, 원주지역 유기농산물이 모두 협동조합을 통해 유통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연구에서는 유기농산물의 생산과 가공, 그리고 유통과 소비의 관계에서 협동조합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한정하고자 한다.

II. 원주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화와 협동 네트워크

1. 유기농업과 협동조합 원칙의 공통점 : 순환과 협동

유기농업은 협동조합과의 협동이 절실하다. 마찬가지로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간의 협동이 절실하다. 유기농업과 협동조합은 공히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는 데 그 공통점은 바로 ‘순환(循環)’과 ‘협동(協同)’이다. 첫째, 유기농업의 원칙에 대해 알아보자. 유기농업은 철학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순환농업 패러다임을 원칙으로 한다. Kwon and Choi (2008)는 유기농업의 원칙을 순환, 가족농 단위, 협동이라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가족농은 경제적으로 빈곤

하고, 생산과 유통에서의 규모의 경제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다. 따라서 가족농 간의 협동은 생존전략 차원에서도 중요한 원칙이다. 지금처럼 국내외적으로 시장편입이 심화된 상황에서 유기농업부문이 도시의 일반 소비자 또는 정부기관의 진정성 있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 만일 소비자나 유통부문의 지원체계가 왜곡되면 그에 따라 생산체계도 원칙에서 순환이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순환농업이라는 용어 속에는 이미 ‘지역 내 폐쇄적 순환’이라는 물질적·생태적 요소와 사람 사이의 순환을 의미하는 사회적 요소가 내포해 있다. 여기서 지역 내 폐쇄적 순환은 지역 내에서 외부 투입물 없이 경종-축산 간 순환이나 지역 내 유희유기자원을 활용한 자원순환 영농방식을 의미한다. 또한 생산과 소비의 지역 내 순환은 도·농간 협동이라는 사회적 순환을 의미하기도 한다. 생협 유통 또는 직거래 유통이 매개가 될 때 수월성이 있다고 보면 ‘지역 내 유통’ 또는 ‘로컬 푸드’는 유기농업의 지역 내 사회적 순환 원칙을 의미한다. 만일 지역 유기농업 체계에서 자체적인 유통망을 확보하지 못하고 외부의 유통조직 또는 외부시장 의존도가 높을수록 순환농업의 원칙은 지켜지기 어렵다. 또한 유기농업 생산자의 고령화, 생산자-소비자 분리 및 불균형적 상호이해, 시장 지향적 태도, 소비자 중심주의 등도 마찬가지로 그 저해요인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로컬 푸드 운동의 새로운 전개도 주요한 변화요인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 유기농산물 소비부족 경향으로 인해 적정 가격과 안정적 판로 확보가 농가에게는 최대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지역순환은 원료 및 농자재 조달에서 생산-가공-유통-소비의 지역 내 순환을 의미한다. 지역순환이라는 용어는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식품체계’(Sustainable Community Food Systems)의 유지로 확장할 수 있다. 이는 특정 지역에서 사회적·경제적·환경적·영양학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식량의 통합적 생산-가공-유통-소비, 그 과정에서의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까지의 협동 네트워크를 의미한다.¹⁾ 이는 구체적으로는 로컬 푸드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유기농업은 1990년대 말 이후에는 정부의 육성정책 지원, 대기업의 유기농산물시장 진입, 기후변화 대응, 수입유기식품 동등성 인정 등으로 시장이 다원화되고 있다. 가족농 단위의 소규모 농가가 대다수인 유기농업에서는 영농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자작농지 보유, 저임금 노동자 확보, 자원봉사자 및 고정 소비자, 지역공동체지원농업(CSA)의 협력,²⁾ 일정한 농외소득(지속적인 직불금 등)이 필요하다. 특히 유통과 소비의 측

1) <http://smallfarms.wsu.edu/ws-pdfs/WREP0135.pdf>

2) 지역공동체지원농업(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CSA)란 지역농식품체계(local food system)의 한 방법으로써 특정 지역 1가구 이상의 농가의 영농자금, 농사 일 돕기, 농산물 구매, 상호 교류 등을 인근 지역(주로 도시민)의 주민들이 모임을 조직하여 농산물 구매를 선불(회비 납부)을 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의 경우는 1980년대에 도시민 모임, 협동조합들이 이러한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들어 CSA운동이 농민시장, 꾸러미택배 등의 형태로 이뤄지고

면에서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는 협동체제가 대안임을 알 수 있다. 소규모 가족농 등 시장 유통이 어려운 농가는 일반유통보다는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때, 앞서 논의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유기농업은 관행농업과는 달리 생협 유통 또는 생산자-소비자 직거래를 하는 것이 적절한 패러다임 때문에 지역공동체의 지원에 힘입어 로컬 푸드를 지향하는 것이다.

둘째, 협동조합의 원칙에 대해 알아보자. 협동이란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단체(결사체), 단체와 단체 간에 공동의 목표와 공동의 권익실천을 위해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협동조합운동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ssociation, ICA)의 협동조합 7원칙 중에는 ‘협동조합 간 협동’과 ‘지역 공동체에 대한 기여’가 있다. ‘협동조합 간 협동’은 주로 사람 간의 협력, ‘지역 공동체에 대한 기여’는 물질적 경제적 기여를 의미한다. 따라서 유기농업 원칙과 협동조합 원칙에는 공통점은 바로 순환과 협동이며, 이들의 교집합 개념은 바로 ‘지역(local)’, ‘지역 공동체(local community)’가 있다. 지역 공동체라는 개념은 너무나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지리적·사회적으로 가까운 공간에 살면서 공동의 의식으로 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연대를 이루고 살아가는 하나의 지역 집단 또는 결사체들의 협력체로 정의하고자 한다. 특히, 유기농업과 협동조합의 관계를 증시하는 지역의 경우 지역 공동체 의식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경제활동의 관계를 시장에서의 거래관계보다는 공동체에서의 협동관계로 설정하기 때문이다. 유기농산물 생산-소비의 관계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는 합리적 선택만을 추구하는 경쟁관계가 아니라 협동관계이다. 따라서 이들은 서로 공동체의 구성원이며 상생관계이다. 생산자-소비자 관계는 납품자-구매자 관계 이상의 관계이다.

요컨대, 지역의 유기농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협동조합이 유기농산물에 대한 로컬 푸드 유통을 위해 협동을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유기농업과 협동조합의 원칙에 충실한 활동을 하는 것이 된다.

유기농업이 시장유통의 대안으로 협동조합을 통한 직거래 유통을 선택한 것이나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협동농업시스템은 그런 의미에서 자연스러운 것인지도 모른다. 유기농업은 생산부문이며 소비과정에서 협동의 원칙이 필요하고, 협동조합은 소비부문으로서 지역농업에 대한 기여의 원칙이 필요하다. 양 부문의 상호관계는 곧 지역 공동체 발전의

있다. 지역공동체지원농업(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이하 CSA)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뤄졌다. CSA의 개념에서 ‘Community’는 보통 ‘지역사회(Gesellschaft)’로 해석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역 공동체(Gemeinschaft)’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미국에서는 Katherine L. A. (2006), Steven M. SI (2007), Cheryl. B (2008) 등이 주로 CSA에 대한 소개하고 있고, Jung 등(2001), Park (2005), Kim (2013) 등도 미국이나 일본을 대상으로 하여 CSA를 연구하였다. Nemoto (2014)는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를 통한 로컬 푸드 운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한일 비교를 중심으로 연구한 바 있다.

기반이 된다. 유기농업과 협동조합의 관계는 결국 유기농산물의 생산과 소비의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적 관계로 축약된다. 따라서 소득이나 물질, 사업과 같은 인간과 경제 중심의 개념보다는 생명, 환경, 교류와 같은 공동체 중심의 개념이 우선이 될 때 협동과 순환의 원칙은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2. 원주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화 과정과 구조

먼저, 원주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화의 과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원주지역의 유기농업은 협동조합과 깊은 연관을 맺으며 발전해 왔는데, 이는 사회적 경제조직화로 귀결되었다. 1985년에 설립된 원주소비자조합(현, 원주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 1989년에 호저소비자조합(현, 원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그 예이다.³⁾

과거에 생산자가 주도적으로 유기농업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을 추진한 곳은 충남 홍성지역과 원주지역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홍성지역의 경우는 최근 들어서 그 초기 모습에서 많이 변질된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Kim (2008)은 홍성지역 풀무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속의 친환경농업 생산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생산자들이 ‘이념동기에 따른 혁신자적 역할’을 하기보다는 이윤동기가 강한 전형적인 농민으로서의 성격에 가깝게 변화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이제 원주지역에서의 최근 논의에 대해 살펴보자. Nho (2010)는 원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기능과 비전을 지역순환경제로 제시하고 있다. 지역순환농업 체계에서는 생산-가공-유통-소비의 전 과정이 순환과 협동의 끈으로 이어져 있다고 본다.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에 기반을 하는 도농 간 협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Park (2013)은 전환 설립된 원주푸드협동조합과 같은 협동조직이 중심이 되어 앞으로 지역의 유기농업 생산-가공-유통-소비지원 등 원주푸드 운동에 대한 농-협-학 컨소시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Kim (2014)은 원주푸드 운동을 민간 주도로 자율성과 자발성에 의해 이뤄지는 지역의 공동체운동으로 인식하고, 지역 공동체를 위한 지역주민의 역량강화와 정치적 조직화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원주지역은 1960~70년대부터 민주화운동, 생명운동에서 파생된 민간주도의 유기농업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이 태동, 발전해 왔다. 원주지역에서의 생명운동, 민주화운동은 유기농산물 유통과 소비부문에서의 사회적 순환, 수평적 협동 방향에 영향을 주었다. Kim (2012)은

3) 생산자 주도로 설립되어 2014년 현재 매장 2곳을 운영하고 있는 원주생협의 전체 조합원은 2,300여 명이다. 이 중 친환경농업 생산자 조합원은 240여 명(인근 횡성군지역 농업인 포함)으로 10.4%이다. 원주생협은 생산자조직인 원주생명농업과 원주생협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원주한살림생협은 조합원 9,000여 명 중 친환경농업 생산자 조합원(생산자회)은 약 500여 명으로 5.6% 정도이다.

원주지역 협동조합운동의 뿌리를 1965년 가톨릭원주교구의 신탁운동, 1970~80년대 광산지역과 농촌지역에서의 소비자조합운동에서 찾고 있다. 도농복합도시인 원주지역이 유기농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데도 논의의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념적 지주가 있었기 때문이다.⁴⁾ 1980년대 초중반부터 비로소 한살림의 도농직거래운동이 그 구체적인 결실로 나타났다. 그러다가 1990년대 후반 들어 <친환경농업육성법>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도약이 이뤄졌다. 2003년에는 이들 ‘협동조합간의 협동’을 위해 협동조합운동협의회를 결성하였다. 여기서 형성된 역량을 확장하여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를 통해 활동을 다변화하기에 이른다. 이때부터 사회적 경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⁵⁾ 특히 2007년의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으로 사회적 기업들이 설립되자 협동조합들은 이들과 함께 ‘새로운 사회적 경제’로의 확장을 모색하였다.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의 지역농업위원회에서 2007년부터 ‘로컬 푸드(local food)’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마침내 2011년 6월,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는 국내에서는 보기 드물게 지역 내 사회적 경제부문의 조직들이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하여 연대조직체 형태의 ‘사회적 경제조직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⁶⁾ 이를 계기로 하여 유기농업 부문은 그 협동사회경제의 순환시스템 내부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시장 안에서의 협동’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

2012년에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법인화가 어려웠던 단체나 예비 사회적 기업들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신설, 전환하였다. 아울러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조례(2009)”, “원주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2013)”도 제정되었다. 더욱이 2014년 4월에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발의되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바로 이 분야가 지역경제에서 새로운 대안모델이라는 점이 반영되었다고 본다.

원주지역 사회적 경제 조직화는 2013년 5월에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 협동조합’이 전환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체계를 갖추었다.⁷⁾ 이종(異種) 협동조합(협동조직)간의

4) 2014년 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친환경농업 농가 중 유기농산물 인증농가의 비중은 11.7%, 무농약농산물 인증농가 비중은 63.1%, 저농약농산물은 22.6%이다. 이에 비해 원주지역은 친환경농업 농가 719농가 중 유기농산물 인증농가는 60여 농가로 그 비중은 8.2%, 무농약농산물은 54.3%, 저농약농산물은 27.5%이다(2014년, 원주시 통계 참조).

5) 사회적 경제는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OECD는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들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가진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앞에서 논의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영농조합법인 등이 여기에 속하는 조직들이다. 자세한 내용은 J00 (2010)를 참조할 것.

6) 2013년 1월 기준으로 볼 때, 조합원 및 회원 수는 총 34,797명으로, 여기에는 중복 계산된 인원이 있지만, 이는 원주시 인구의 10%에 해당한다. 총 매출액은 약 325억 원이고, 고용은 409명이다. 이 수치를 2010년 말 기준의 조합원 31,000명, 총매출 265억 원, 고용 475명과 비교해 보면, 조합원 수와 매출액은 다소 증가하였지만, 고용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2013).

7) 본 연구는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 협동조합’ 자체가 분석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단

협동네트워크의 외연이 확장·심화된 것이다. 기존의 생협, 회사나 단체 형태에서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으로, 다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 신설이 이뤄져 왔다. 2014년 말 현재 총 28개 단체, 개인 전문직 3명으로 총 31개가 참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연관단체들도 연대활동에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잠재적으로 네트워크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다.⁸⁾

다음으로 원주지역 사회적 경제 조직화의 구조를 정리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유기농업을 중심으로 하여 설명해 보기로 한다. 사회적 경제 조직화에 참여하고 있는 세부 조직들은 제1차 산업인 유기농업을 기반으로 하여 가공, 유통, 소비부문, 신용, 사회서비스, 교육 등 전반에 걸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생협, 사회적 기업, 마을공동체(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사회시민단체, 문화, 개인 전문직 등으로 협약을 통해 사회적 경제 조직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유기농업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 조직들은 대부분 전방산업에 해당되어 유기농업의 가공-유통-소비활동과 연관을 맺으면서 연관효과(linkage effect)를 실현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

협동네트워크가 형성되는 두 개의 축은 수직적 계열화와 수평적 협동화이다. 첫째, 유기농업 부문에서는 협동조합을 매개로 한 수직적 계열화가 순환농업의 구조를 실천하는 방식이다. 이는 단위조직이 생산 → 가공 → 유통 → 소비까지의 이중 업무를 수직적으로 통합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Fig. 1에서는 각 조직별로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수직적 계열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유기농산물의 흐름은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합하고 있는 네트워크의 정점은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각 부문별 조직들은 서로 활동이 분리되어 있지만 내용을 보면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즉, 생산은 생산자들이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등의 협동조직을 결성하여 생산한다. 가공과 물류는 생산자나 생산자조직, 생협 계열의 가공회사에서 원재료를 가공한다. 이때 가공용 원재료는 자체 생산물을 우선으로 하지만 상당수는 외부 또는 지역의 다른 조직에서 조달한다. 나아가 1차 농산물과 직접 가공한 농식품을 물류를 통하여 단위조직별로 연관되어 있는 지역 내 생협 매장에 납품한다. 나아가 단위조직별로 연관되어 있는 생협 등 중앙유통연합에 납품하여 생협이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생협은 이를 자체 조합원, 연관된 네트워크 내의 각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이러한 과정을 크게 그리고 역으로 보면, 도시의 생협과 지역의 생산자 조직이 수직적 계열화를 통해 협동을 하는 양상이다.

체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조직도 일부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원주에서 지역적으로 가깝고 활동의 범주가 비슷한 횡성지역 소재의 단체도 일부 본 분석에 포함되어 있다.

8) 2014년 현재 중간지원기관의 성격이 있는 단체는 협동사회경제연구원(상지대학교),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청년창업팀 육성), 강원도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 청년창업팀 16개 및 관련 예비 사회적 기업 2개, 원주친환경농업인연합회, 원주생명농업, 횡성친환경가공생산자연합회 등 친환경농업인단체 3개, 위스타트태장마을센터, 주거복지센터, 밝음아동센터 등 사회복지단체 3개 등이다.

예컨대, Fig. 1에서 원주생협의 사례를 보면, 생산자조직이 주도적으로 생협을 설립하였지만, 뒤에는 원주생명농업이라는 법인으로 독립하였다. 원주생명농업은 1차농산물산을 자체적으로 물류(실선 화살표), 가공을 하여 원주생협 또는 수도권 생협연합체에 납품하거나(이 점쇄선 화살표), 다른 가공 조직에 원료로 공급한다(점선 화살표). 원주한살림생협이나 남한강영농조합법인, 원주가농영농조합법인은도 비슷한 체계를 갖고 있다.

특이한 것은 앞서의 단위조직의 수직적 계열화 내부에서 유통만을 전담하는 독립조직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앞에서 예를 든 대로, 생협 계열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생산-가공-유통을 겸업하고 있거나, 생협 내부의 유통담당 위원회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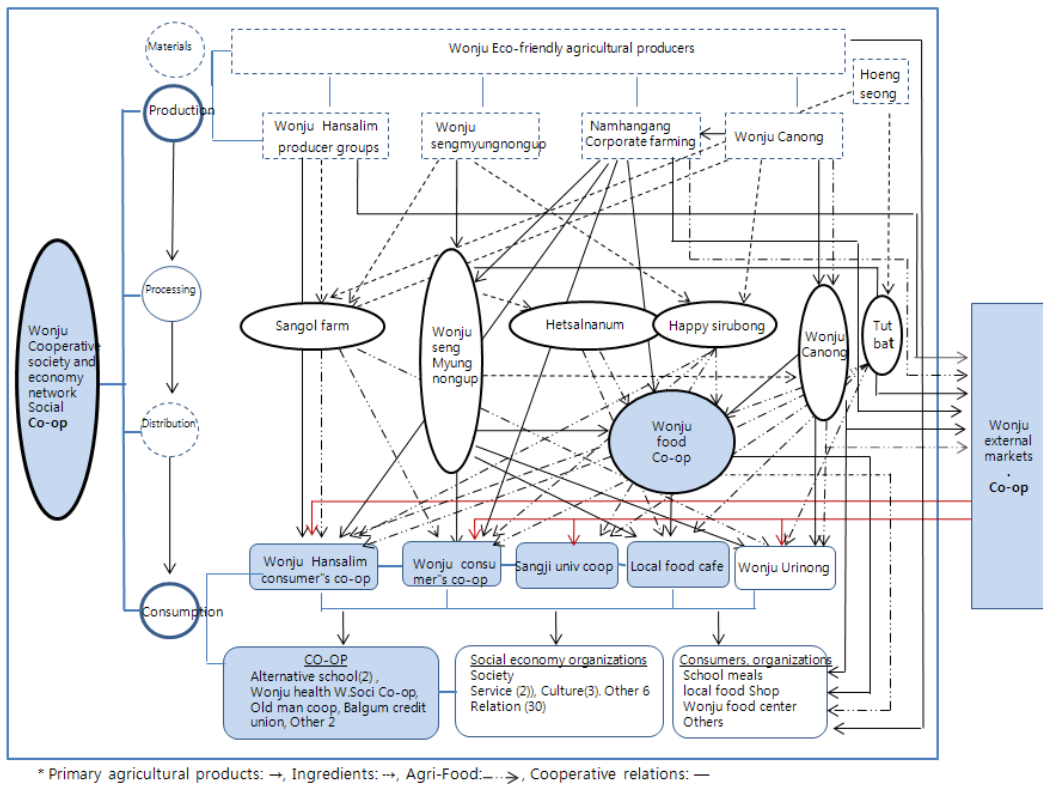


Fig. 1. Organic agriculture and cooperatives : vertical integration and horizontal cooperation of the Wonju Cooperative society and economy network (2015).

둘째, 협동조합 간의 수평적 협동화는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Fig. 1에서 보는 것처럼, 생산부문에서 수평 축에 있는 4개 생산자 조직이 직접적으로 생산 시 영농자재를 공유하며 협동생산을 한다거나, 협동유통, 공동가공, 공동교육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Fig. 1에서 4개 생산조직, 7개 가공·유통조직, 5개 생협과 3개 소비지원조직 간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연결해 주는 실선이 없는 것을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 가공과 유통부문에서 7개 조직이 원재료의 상호 제공, 다른 생산조직으로부터 제1차 농산물을 조달받고, 자기 조직의 가공식품을 타 소비조직에 납품하는 협동 활동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시스템적으로 체계화·지속화되어 있는 단계는 아니다. 소비부문의 4개 생협과 1개 협동조직은 소비활동에서 직접적으로 협동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각 협동조합 조합원이 다른 협동조합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등의 간접적인 경우 이외에 특별히 공동사업을 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그 이유는 5개 소비조직이 각자 자신의 중앙 물류조직과의 생산물 납품과 소비재 구매에서의 독립적으로 수직적 계열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Fig. 1의 큰 박스 안에 있는 대부분의 조직들은 협동조합 간 협동의 원칙을 실천하기 위한 ‘협약’을 맺고 있지만 각 조직간, 다른 조직과 다른 활동부문간의 협동 활동은 답보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Fig. 1에서 원주지역 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원들이 생산한 유기농산물 중에서 일반적인 유통경로로 나간 것을 제외하고 큰 박스 안의 사회적 경제 영역 등 내부시장에서 소비되는 물량은 많지 않은 것으로 관찰된다. 대부분은 큰 박스 밖의 수도권의 대형 생협 연합체 유통경로와 같은 외부시장으로 나가고 있다. 역으로 보면, 대다수 품목들이 원주지역 외부시장으로 나가고 또 그 경로를 따라 역으로 외부시장에서 유기농산물과 그 가공식품이 들어온다.⁹⁾ 어쨌거나 내외부시장 유통망과 가공업체를 통해 그 유통망 내에 있는 생산농가는 안정적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 가공부문 역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조달받을 수 있다. 결국 이 유통망에 합류하지 못하는 품목이나 개별 농가는 이 네트워크에서 보호받기 어렵게 된다. 이 때문에 품목의 단작화와 품목의 계열화가 이뤄지고, 지역식량계획을 수립하거나 로컬 푸드를 확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지역 내부든 외부든 거래 상대가 ‘생협’이라는 점이다.

결국 수직적 계열화와 협동조합 간 협동은 사업연계를 통해 전후방연관효과, 지역 내에서 규모의 경제성과 범위의 경제성을 기대할 때 시행하는 내부시장 확장전략이다. 특히 협동조합간의 수평적 통합은 동종 조직끼리의 경쟁관계 대신에 협동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나름대로의 ‘협조적 내부시장’을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주지역에서의 유기농 식품 소비시장은 과점시장에 가깝고, 시장에서는 암묵적 경쟁관계이지만, 네트워크 안에서는 협조적 경쟁체제에서 협동조합 간 협동을 추구하고 있다.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은 조직 간의 자발적 협약과 상호출자, 인적 교류, 교육, 공

9) 원주지역의 소비자조합운동이 1970년대부터 자생적으로 발전해 왔지만 지역 내 순환이 취약한 것은 아마도 유기농산물에 대한 유효수요층을 지역 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당시 광산촌 소비자조합이나 수도권의 소비자조합, 종교단체, 생협 등에서 유효수요를 창출해 주었고, 그러한 관계가 관행이 되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 사업, 개별 사업의 협력 등에 의해 계열화, 협력 및 협연관계가 맺어 진다. 소규모의 동종 또는 이종 협동조직들이 수직적·수평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보완적 협동을 통해 사업규모를 크게 하면 규모의 경제성이 발생하고, 동시에 각종 영농비 등 중복비용의 감축, 유기농업 전환과 조정에 따르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의 최소화로 범위의 경제성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에서 ‘보호된 내부시장’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Ⅲ. 조사방법

1. 조사개요

1) 참여자 선정과 자료수집

유기농업과 협동조합의 상호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이 문제와 연관성이 높은 부문의 이해관계자 35명을 모집단으로 삼았다. 그러나 유기농업 생산-유통-가공-소비-지원후견조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일반적인 대규모 설문조사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에 여러 해 동안 현장 활동가로서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있으며 관련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현장 전문가(기관 임원)를 연구자가 선정하고, 직원(회원)은 임원의 추천을 받아 대상자로 선정하여 Panel Survey를 실시하였다. 설문 참여자에 대한 기초자료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Survey participants (panel) configuration

(Unit : number of panel)

Sector	Affiliation of the panel	Play areas, title	Sex	Age	Persons
Production (7)	Wonju Hansalim producer groups	Officers (members)	M	54	1
	Wonju Hansalim producer groups	Members(members)	M	60	1
	Wonju sengmyungnongup	Officers (members)	M	55	1
	Wonju sengmyungnongup	Officers (members)	M	48	1
	Namhangang corporate farming	Employees (farmer)	M	55	1
	Wonju canong	Officers (farmer)	W	55	1
	Wonju canong	Members (members)	M	49	1
Processing (4)	Happy sirubong	Officers	M	43	1
	Hetsalnanum	Officers	M	36	1
	Hoengseong tutbat	Officers	M	50	1
	Namhangang corporate farming	Members (farmer)	M	64	1

Sector	Affiliation of the panel	Play areas, title	Sex	Age	Persons
Distribution (4)	Wonju food Co-op	Employees	M	46	1
	000 Co-op	Officers	M	49	1
	Wonju sengmyungnongup	Officers	M	50	1
	Wonju canong	Employees	W	40	1
Consumption (8)	Wonju hansalim Co-op	Officers (members)	W	55	1
	Wonju hansalim Co-op	members	W	51	1
	Wonju Co-op	Officers (members)	W	48	1
	Wonju Co-op	members	W	51	1
	Sangji univ co-op	Employees	M	44	1
	Wonju canong urinong	members	W	50	1
	00 Co-op	Officers (members)	M	47	1
	00 Co-op	members	W	60	1
Support organizations (7)	Co-operating society and economy network Co-op	Support, Officers	M	43	1
	Medical Co-op	Backing, Officers	M	42	1
	Muwidang peoples	Backing, Officers	M	48	1
	Wonju canong	Support, Officers	M	40	1
	Balgum credit union	Backing, Officers	M	51	1
	Wonju hansalim Co-op	Support, Officers	M	42	1
	Gangwon-do social economy support center	Support, Officers	M	40	1
Expert (5)	Co-operating society and economy network Co-op	Local experts	M	74	1
	Co-operating society and economy network Co-op	Local experts	M	52	1
	Professor	Research & Support	M	60	1
	Professor	Research & Support	M	57	1
	Professor	Research & Support	M	56	1
Total					35

2) 조사도구와 분석방법 : Delphi Technique 활용

본 연구에서는 조사도구로 델파이 조사법을 도입하였다. 그 이유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것보다는 핵심 현장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을 직관적으로 제시하도록 피드백을 시켜 도출된 동의수준을 체계화, 객관화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가 유기농업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연구자가 이러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환경, 원주지역의 생-소 관계 분석에 연관성이 높은 내용으로 10개 분야를 미리 설정하였다. 참여자들에게 똑같은 설문지를 통해 자유의견을 제한 없이 제시하도록 하였다.

제1차 델파이 조사는 유기농업 영농체계에서 ‘생산자-소비자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로컬 푸드시스템 특성 관련 14개 문항, 유기농업과 협동조합의 상호관계 특성 15개 문항 등 총 29개 문항으로 구성된 개방형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만들었다. 부문별 한 명씩 사전조사를 통해 문항을 조정하고, 30명의 현장 전문가들에게 미리 공지를 한 후 이메일로 보내거나 직접 면담을 통해 회신하였다. 문항 내용이 개인이나 개인의 소속단체의 정체성을 노출하는 데 부담을 줄이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익명성을 보장하여 참여자들의 주관적 생각을 가감 없이 심층적으로 파악하였다.

조사기간은 2014년 7월 17일부터 10월 9일까지 이뤄졌다.

제2차 델파이 조사는 제1차 델파이조사 결과 나온 답변을 정리하여 1-3순위 중 문항별 중요도가 높은 것을 선정하여 폐쇄형 설문지를 다시 작성하여 배부하였다. 유기농업 영농체계 특성 관련 4개 분야에 29개 문항, 유기농업과 협동조합의 상호관계 특성 관련 6개 분야에 35개 문항 등 10개 분야에 총 6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설문에 참여하는 패널들이 해당분야 전문가들이므로 각 문항에 응답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등간척도에 따른 Likert Scaling 7점 척도로 문항분석법(item analysis)을 채택하였다. 문항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이고, “매우 그렇다”는 7점으로 등간척도를 만들어 동의수준을 표기하도록 하였다.

조사기간은 2014년 10월 27일부터 12월 7까지 이메일과 면담을 통해 심층적으로 이뤄졌다.

설문 결과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부문별 빈도(N), 평균(M), 표준편차(SD) 등 기술통계량, 부문별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나아가 총 54개 문항에 대한 5개 활동부문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여 F값과 p값을 구하였다.

제3차 델파이 조사는 제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나타난 기술통계량(평균과 표준편차)을 참여자들에게 제시하고, 7점 척도에서 평균 4점 이하는 기각하며, 문항을 수정하여 부문별 참여자 30명과 전문가 5명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통해 제2차 조사결과를 토론을 통해 조정, 자문 청취를 통해 확정한다.

2. 델파이 조사결과 분석

1) 조사결과

(1) 제1차 조사 결과

제1차 설문조사는 설문 참여자 총 35명 중 전문가 5명을 제외하고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총 10개 부문 29개 문항으로 구성된 제1차 개방형 설문지를 회수하여 답변 내용 중 중요도가 높고 빈도수가 높은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리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제1차 설문은 대상자 30명 중 30명이 모두 회신하였으며, 1명

은 내용이 빈약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 29명의 응답내용을 분석하였다. 한 문항 당 여러 가지 중복응답도 있어서 모두 포함하였고, 3위 이외의 기타 응답은 구체성이 결여되었거나 다빈도 응답과 내용상 차이가 많은 답변은 순위를 부여하지 않았다.

Table 2. The first survey results

Sector	Question number & description	Main answer summary (frequency)				
		1st	2nd	3rd	others	No answer
1. Production	1.1. Farming unit, Scale	Family farms(29), Small farms (26)	- Medium farms(2)	- Large-scale farms(1)	- -	(3)
	1.2. He participation rate of producers in cooperative association	others(8)	25-50%(6)	50-70%(3)	(10)	(10)
	1.3. The producer-consumer relationship	Mutual benefits(17)	Consumers benefit(9)	disconnection (3)	-	(2)
2. Processing	2.1. Processors	Farming corporation(17)	farmer(12)	Co-op(1)	(2)	(2)
	2.2. Country of Origin Rate of the materials of processed food	5-20%(9)	20-60%(3)	-	(6)	(14)
3. Distribution	3.1. Local food consumption rate in Wonju	5-20%(15)	20-50%(2)	-	(5)	(9)
	3.2. The main body to solve the distribution issue	co-op(21)	Farming corporation(7)	Company(2)	(3)	-
	3.3. The main body leading distribution	co-op(19)	farmer((10)	Farming corporation(3)	(1)	(3)
	3.4. Payment method	Postpaid(24)	Mix(4)	Advance payment(1)	-	(3)
	3.5. The main body leading exchange between producers and consumers	co-op(22)	farmer(4)	Farming corporation(3)	(3)	-
	3.6. The main body leading exchange between producers and consumers	Farm meeting(18)	Shop meeting(7)	Internet(5)	-	-
4. Consumption	4.1. Transaction relationship between producers and consumers	Closely(16)	Closely(9)	Not close(6)	-	-
	4.2. Consumers's tendency	Family Health(21)	Environmental Preservation(16)	Farmers Support(3)	(3)	-
	4.3. Consumers' support of producers	Agricultural funds(12)	Consumption, itself(12)	Farming aid(8)	-	(3)

Sector	Question number & description	Main answer summary (frequency)				
		1st	2nd	3rd	others	No answer
5. Background	5.1. The cooperation background between organic farming and cooperative association	Practical philosophy(23)	Stable distribution(2)	Social survival(1)	(1)	-
	5.2. The cooperation year of organic farming and cooperative association	Before and after 1985(10)	1990(9)	Since 2003(7)	(3)	(4)
6. Type	6.1. The main body of mutual cooperation	Cooperative activists(13)	Consumer(12)	farmer(11)	-	(2)
7. Business Environment	7.1. The interest in local food	Higher(22)	lower(6)	Interest high but not practical(5)	(3)	-
	7.2. The producer-consumer exchange and distribution	Cooperative office(18)	Cooperative organizations(6)	Farming corporation(1)	(4)	(3)
	7.3. The organic farming- cooperative association support system	Although weak(13)	None(5)	Local food bylaw(2)	(2)	(5)
	7.4. The source of developing organic farming-cooperative association	Indigenous(20)	In the past, the indigenous, is now dependent(9)	Dependent(3)	(1)	-
	7.5. The cooperation of organic farming-cooperative association	Consumption(20)	Distribution(14)	Production(14)	-	(3)
8. Goal	8.1. The cooperation goal of organic farming-cooperative association	Community(22)	Income increase(5)	Local circulation(4)	(1)	-
9. Evaluation	9.1. Different from other regions	Equal(14)	Different(10)	Do not know (1)	(5)	(5)
	9.2. The obstacle of the cooperation of organic farming-cooperative association	Lack of cooperation(14)	Lack of management skills(10)	Philosophy Poverty(10)	-	-
	9.3. Leadership	None(23)	Exists(4)	Do not know (2)	-	(2)
	9.4. The advantage of cooperation in two parts	Cooperative Spirit(13)	Income increase(8)	Quality of Life (7)	(1)	(3)
	9.5. The key of the cooperation in both parts	Community(13)	Life thoughts(7)	Cooperative ties (5)	(1)	(2)
10. Improve way	10. A measure to improve cooperation in two parts	Cooperation between cooperatives(9)	Local circulation agriculture system(7)	Democratic communication, learning(6)	(8)	(8)

(2) 제2차 조사 결과

제1차 조사결과 빈도가 높은 상위 3위 이내의 높은 중요도를 가졌다고 판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제2차 폐쇄형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10개 분야 총 6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다시 30명에게 이메일 발송과 면담을 통해 30명분을 회수하였다. 7점 척도로 평균(M)을 구하고, 표준편차(SD)를 분석한 결과를 Table 3과 Table 4에 정리하였다.

7점 척도에서 평균 6.0이상 받은 문항은 7개였다. 그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 성향(6.34)’이며, ‘지역순환(생산-유통-소비) 체계의 재구축(6.17), ‘대금지불방법은 직불 및 후불’(6.10, 6.07), ‘교육과 교류의 활성화 필요’(6.07), ‘농산물은 생협 매장 방문 구매’(6.03), ‘협동조합 간 협동 필요’(6.00)의 순이었다. 반면에 3.5점 이하의 낮은 동의수준을 보인 것은 5개였다. ‘유기농업 각 경제활동 부문과 협동조합, 협동조합 각 부문이 협동이 안 되고 있다’(3.14)와 ‘생산자-소비자 교류, 유통지원 조직에서 협동조합 연합체(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3.14), ‘생산자-소비자 거래관계가 일회적이며 비우호적’(3.28), ‘소비자의 생산자 지원은 영농자금 지원’(3.31), ‘농산물은 주문배달, 택배로 구매’(3.45) 순이었다. 전체 64개 문항 평균은 4.90로 높은 편이었으며, 표준편차 평균은 1.40이었다.

Table 3. Analysis results in economic activity area

	Question number & description	M	SD
1. Production	1.1. Farming unit is divided into family farming and small-sized farming	5.41	1.27
	1.2. The participation rate of producers in cooperative association is 50% or so	4.07	1.67
	1.3. Mutual benefits of producers-consumers	5.66	1.65
	1.3.1. Consumers take benefit	4.48	1.35
2. Processing	2.1. Processors are farmers and farmer groups	4.45	2.05
	2.2. Country of Origin Rate of the materials of processed food is 5-20%	4.72	1.62
3. Distribution	3.1. Local food consumption rate in Wonju is 5-20%	4.59	1.57
	3.2. The main body to solve the distribution issue is cooperative association	5.21	1.45
	3.2.1. Farmer groups, including agricultural corporation	4.76	1.53
	3.3. The main body leading distribution is cooperative association	5.17	1.51
	3.3.1. Organization of farmers	4.83	1.54
	3.4. The way of purchasing farming products: visit to cooperative association	6.03	0.82
	3.4.1. Order & delivery	3.45	1.43
	3.5. Payment method: deferred payment	6.07	1.10
	3.5.1. Direct payment	6.10	0.98

	Question number & description	M	SD
	3.6. The main body leading exchange between producers and consumers is cooperative association	5.41	1.66
	3.6.1. Producers	4.41	1.64
	3.6.2. Consumers	3.86	1.55
	3.7. The main body leading exchange between producers and consumers is gathering event, internet	5.21	1.57
4. Consumption	4.1. Transaction relationship between producers and consumers is close	4.41	1.57
	4.1.1. One-time and unfriendly	3.28	1.46
	4.2. Consumers's tendency is family-health-centric	6.34	0.61
	4.2.1. Environment-centric	4.86	1.36
	4.2.2. Producer-support-centric	4.03	1.30
	4.3. Consumers' support of producers is in type of farming fund support	3.31	1.51
	4.3.1. Trust-based purchase itself	5.86	0.99
	4.3.2. Voluntary service of farming work	3.52	1.30

Table 4. Analysis results in business environment area

Sector	Question number & description	M	SD
5. Background	5.1. The cooperation background between organic farming and cooperative association is life philosophy	4.83	1.51
	5.1.1. Solution to distribution issue	4.79	1.42
	5.2. The cooperation year of organic farming and cooperative association is 1985	4.28	1.67
	5.2.1. Before and after 2003	4.59	1.80
6. Type	6.1. The main body of mutual cooperation is activists of cooperative association	5.38	1.40
	6.1.1. Producers	4.14	1.46
	6.1.2. Consumers	3.97	1.57
7. Business environment	7.1. The interest in local food is high but not practical	4.72	1.77
	7.2. The producer-consumer exchange and distribution is supported by cooperative association	5.52	1.62
	7.2.1. Allied organizations including cooperative association	3.14	1.43

Sector	Question number & description	M	SD
	7.3. The organic farming-cooperative association support system exists	4.93	1.60
	7.4. The source of developing organic farming-cooperative association is self-motivated	5.79	1.08
	7.4.1. The start is self-motivated; now dependent on the outside	4.24	1.57
	7.5. The cooperation of organic farming-cooperative association is found in consumption and distribution parts	5.10	1.26
	7.5.1. Nothing	3.14	1.46
8. Goal	8.1. The cooperation goal of organic farming-cooperative association is implement a local community	5.72	1.22
	8.1.1. A rise in farm incomes	4.97	1.15
	9.1. Different from other regions, because of co-op	4.79	1.66
	9.1.1. Similar or equal	4.10	1.78
	9.2. The obstacle of the cooperation of organic farming-cooperative association is a lack of the sense of cooperation	5.55	1.06
	9.2.1. A lack of management ability of each organization	4.79	1.40
	9.2.2. Poor philosophy of each participant	4.86	1.27
	9.3. Leadership is in absence	5.41	1.59
	9.3.1. There was in the past, but there is not at present	5.31	1.49
9. Evaluation	9.4. The advantage of cooperation in two parts is the existence of the sense of cooperation	5.55	1.15
	9.4.1. Helpful to an increase in farm incomes	5.03	1.21
	9.4.2. Improvement in quality of lives of both producers and consumers	5.07	1.13
	9.5. The key of the cooperation in both parts is development of local community	5.90	0.94
	9.5.1. Profits of cooperation between cooperative associations	5.14	1.19
	10.1. A measure to improve cooperation in two parts is cooperation between cooperative associations	6.00	1.20
	10.1.1. Democratic communication & leadership improvement	5.72	1.22
	10.1.2. Re-establishment and organization of production system	5.28	1.46
	10.1.3. Re-establishment of local circulation system	6.17	0.97
	10.1.4. Activation of education and exchange	6.07	0.80
10. Mprove way	10.1.5. Practice of life Life Thought	5.45	1.40
	The average full items	4.90	1.40

(3) 제3차 조사결과 : 해석과 평가

제3차 조사는 제2차 설문조사 결과에서 7점 척도에서 동의수준이 낮아서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되고 M(평균) 4.00점 이하 점수를 받은 8개 문항은 기각하여 제외하였다. 이들 문항은 5개 활동부문의 평균비교 분산분석에서 p값도 .600에서 0.965 사이로 높아 유의확률도 낮았다. 10개 분야 총 54개 문항으로 재조정하여 기초 해석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하여 상지대학교 협동사회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를 통해 설문 참여자들과 중간지원조직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거쳤으며,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개별면담 및 의견수렴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결과 해석을 하였다. 제3차 조사 분석 결과는 Table 5, Table 6에 정리하였다. 여기서 M1은 생산부문(7명), M2는 가공부문(4명), M3는 유통부문(4명), M4은 소비부문(7명), M5는 중간지원부문(7명)의 평균을 나타낸 것이고, M은 전체 5개 부문의 평균, SD는 전체 5개 부문의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각 문항별 분석에서 평균점수(M)와 표준편차(SD)가 모두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참여자 그룹별(활동 부문) 교차분석에서는 평균과 표준편차가 모두 달라서 활동부문별 인식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생산부문(M1)과 소비부문(M4) 사이에서는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다음의 Table 3의 문항 중 M값이 1점 이상 많은 차이가 나는 문항은 문항번호 1.3, 1.3.1, 3.2, 3.2.1, 3.3, 3.6, 3.7, 4.1.1, 5.1.1, 5.2.1, 6.1, 7.2.1, 7.5, 8.1, 9.1, 9.2.1, 9.2.2, 9.3, 10.1.1이었다. 또한, 생산부문과 중간지원부문 사이에서 M값이 1점 이상 많은 차이가 나는 문항은 문항번호 1.1, 1.3.1, 3.6.1, 5.2, 5.2.1이었다. 이는 설문 참여자가 소속된 단체의 활동 특성 및 지향점, 개인적 경험, 경력 등 개인적인 편향, 정보 부족 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각 그룹(활동 부문), 개인 간에는 ‘인식과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각 문항별로 표준편차(SD) 평균치가 1.70 이상으로 높은 문항은 4개였다. ‘유기농산물 가공업자가 누구인가’(2.05), ‘유기농업과 협동조합의 협동 시작 시기가 2003년 전후이다’(1.80), ‘원주지역의 유기농업 시스템은 다른 지역과 같거나 비슷하다’(1.78), ‘로컬 푸드에 관심은 높으나 실천이 안 되고 있다’(1.77) 순이었다. 반면에, 각 문항별로 5개 부문의 표준편차(SD) 평균치가 1.00이하는 7개 문항이었다. ‘가족농 영농단위’, ‘유기농 소비자의 가족 건강중시 성향’, ‘소비자가 생산자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유기농산물을 구매하는 것 자체’, ‘협동의 목표가 지역공동체 유지’, ‘농산물은 생협 매장 방문 구매’ 라는 문항에서는 편차가 크지 않았다. 특히, 원주지역 유기농업-협동조합 간 협동의 개선방안 관련 5개 문항은 전체적으로 평균점수도 높고 표준편차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부문의 조사결과는 Table 5와 같다. 생산자들은 가족농과 소농이 대부분이며(5.41), 유기농업 생산자의 협동조합(농협을 제외한 생협, 협동조합) 참여비율은 50% 전후(4.07)라는 데는 동의수준이 낮았고 표준편차는 2.05로 크게 나타났다. 이를 제1차 조사를 통해 분석해 보면 무농약농산물 인증농가 이상은 80%이상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생산자의 입

장에서 소비자와의 관계는 어떤가 하는 문항에서 ‘호혜적’인 편(5.66)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소비자가 주로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는 데에서도 4.48점을 나타냈다. 특히, 교차분석에서 ‘상호 호혜적’이라고 하는 문항에서 생산자는 6.29점으로 매우 높은 반면에 소비자 조합원들은 5.29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소비자가 주로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는 문항에서 생산자는 3.57점, 소비자 조합원은 4.57점, 지원후견기관 참여자는 5.14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총 54개 문항에 대한 집단 내 5개 활동부문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여 F값과 p-value를 구하였다. 그 결과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확률이 $p < .05$ 인 경우는 5개 문항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유의확률이 $p > .05$ 인 문항은 49개 문항으로 집단 내 5개 활동부문 간에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Production sector

Question number & description	M					M	SD	F	p
	M1	M2	M3	M4	M5				
1.1. Farming unit is divided into family farming and small-sized farming	6.00	4.25	5.50	6.00	4.86	5.41	1.27	2.287	.090
1.2. The participation rate of producers in cooperative association is 50% or so	4.57	3.50	4.25	4.43	3.43	4.07	1.67	.590	.673
1.3. Mutual benefits of producers-consumers	6.29	5.25	5.50	5.29	5.71	5.66	1.65	.376	.823
1.3.1. Consumers take benefit	3.57	4.75	4.50	4.57	5.14	4.48	1.35	1.314	.293

* $p < .05$

가공부문의 조사결과는 Table 6과 같다. 가공은 생협과 연관이 있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농민조직이 주도(4.45)한다. 원재료의 원주지역 원산지 비율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없지만 최대 20%이내(4.72)라고 생각하고 있다.

Table 6. Processing sector

Question number & description	M					M	SD	F	p
	M1	M2	M3	M4	M5				
2.1. Processors are farmers and farmer groups	5.29	4.00	3.00	5.14	4.00	4.45	2.05	1.153	.356
2.2. Country of Origin Rate of the materials of processed food is 5-20%	4.57	3.75	5.50	5.43	4.29	4.72	1.62	1.072	.392

* $p < .05$

유통부문의 조사결과는 Table 7과 같다. 원주지역내 로컬 푸드 소비율은 최고 20% 이내 (4.59)로 추정하고 있다. 즉, 제1차 조사에서도 나타난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실제로는 10% 정도로 추정된다. 생산과 소비에서 유통애로를 해결해 주는 주된 역할은 협동조합(5.21)이고, 영농조합법인 등이 농민조직(4.76)이 이를 보완하고 있다. 유기농산물 구매는 협동조합 매장 방문(6.03)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생-소 교류를 주도하는 주체도 협동조합(5.41)이며, 상호 교류하는 것도 협동조합 매장(판매장) 등에서의 만남(5.21)행사를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거래 시 대금 결제방식은 기관(판매장)과 소비자들 간에는 직불(6.10)이며, 기관과 기관 또는 기관과 생산자 간 거래는 후불(6.07)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Table 7. Distribution sector

Question number & description	M					M	SD	F	p
	M1	M2	M3	M4	M5				
3.1. Local food consumption rate in Wonju is 5-20%	4.86	3.50	5.75	4.29	4.57	4.59	1.57	1.172	.348
3.2. The main body to solve the distribution issue is cooperative association	4.57	6.00	3.50	6.29	5.29	5.21	1.45	4.502	.007*
3.2.1. Farmer groups, including agricultural corporation	5.43	4.00	5.25	4.43	4.57	4.76	1.53	.769	.556
3.3. The main body leading distribution is cooperative association	4.14	6.25	5.00	5.86	5.00	5.17	1.51	1.940	.136
3.3.1. Organization of farmers	5.00	4.00	5.50	4.86	4.71	4.83	1.54	.475	.754
3.4. The way of purchasing farming products: visit to cooperative association	6.00	6.50	5.75	6.57	5.43	6.03	0.82	2.635	.059
3.5. Payment method: deferred payment	6.43	6.75	6.25	5.57	5.71	6.07	1.10	1.165	.351
3.5.1. Direct payment	6.00	6.25	6.00	6.43	5.85	6.10	0.98	.324	.859
3.6. The main body leading exchange between producers and consumers is cooperative association	4.57	6.00	5.00	6.57	5.00	5.41	1.66	1.778	.166
3.6.1. producers	5.00	4.25	4.50	4.43	3.86	4.41	1.64	.402	.805
3.7. The main body leading exchange between producers and consumers is gathering event, internet	4.58	4.00	5.75	5.71	4.71	5.21	1.57	3.984	.013*

* p < .05

한편 ‘유통문제 해결의 주체는 협동조합인가’ 라는 문항에서 p 값이 .007로 활동부문별 평균 차이가 유의한 것은 소비부문(생협)과 그 계열조직인 가공부문은 협동조합이라는 생각이 강하지만, 생산자와 유통부문에서는 오히려 생산자 자신이나 영농조합이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생-소 교류방법은 만남행사, 인터넷이다’라는 문항에서도 p 값이 .013로 활동부문별 평균 차이가 유의하였다. 이는 주로 생협 매장이나 생협의 인터넷망을 통해 그러한 활동이 이뤄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소비부문의 조사결과는 Table 8과 같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는 어느 정도 우호적이고 긴밀하지만(4.41), 그 긴밀도 점차 쇠퇴하고 있는 것(3.28)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산자는 우호적이라고 생각(4.86)하는 반면 소비자(생협)는 비우호적(4.43)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유기농산물 소비자들의 성향은 환경보전(4.86)이나 생산자 지원의식(4.03) 보다는 ‘가족 건강’을 매우 중시(6.3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준편차 0.61). 한편, 영농자금 지원(3.31)이나 농사 일 봉사 등 영농에 참여하며 공동책임을 지는 데(3.52)에는 매우 동의수준이 낮다. 대신 유기농 생산자에 대한 신뢰를 보내면서 소비를 지속해 주는 것 자체(5.86)를 생산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Table 8. Consumption sector

Question number & description	M					M	SD	F	p
	M1	M2	M3	M4	M5				
4.1. Transaction relationship between producers and consumers is close	4.86	4.00	4.00	4.43	4.43	4.41	1.57	.249	.908
4.2. Consumers's tendency is family - health-centric	6.14	6.25	6.25	6.71	6.29	6.34	0.61	.871	.496
4.2.1. Environment-centric	5.14	4.75	4.25	4.86	6.00	4.86	1.36	.272	.893
4.2.2. Producer-support-centric	4.00	3.75	3.00	4.57	4.29	4.03	1.30	1.064	.396
4.3.1. Trust-based purchase itself	6.14	6.25	5.50	6.00	6.43	5.86	0.99	.771	.554

* $p < .05$

유기농업과 협동조합의 협동의 배경에 대한 조사결과는 Table 9와 같다. 양 부문의 상호협동의 배경은 생명철학 실천(4.83)에 있으며, 이를 통해 유통안정을 이뤄 도농상생을 추구(4.79)하려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유기농업-협동조합이 본격적으로 협동 활동을 전개한 시기는 1985년 원주소협(현, 한살림)운동 시작(4.28)이고, 2003년에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라는 협동조합 네트워크가 결성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협동 활동의 시작 시기에 대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생각이 크게 대비되고 있다.

Table 9. The cooperation background between organic farming and cooperative association

Question number & description	M					M	SD	F	p
	M1	M2	M3	M4	M5				
5.1. The cooperation background between organic farming and cooperative association is life philosophy	5.14	4.75	4.25	4.86	4.86	4.83	1.51	.200	.936
5.1.1. Solution to distribution issue	4.14	5.00	4.50	5.57	4.71	4.79	1.42	.950	.453
5.2. The cooperation year of organic farming and cooperative association is 1985	3.57	5.25	3.00	4.00	5.43	4.28	1.67	2.615	.060
5.2.1. before and after 2003	5.57	4.00	5.50	4.29	3.71	4.59	1.80	1.424	.256

* p < .05

양 부문의 협동 유형 대한 조사결과는 Table 10과 같다. 양 부문의 협동 활동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참여하고 협동조합(협동조직) 사무국이 주도(5.38)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0. The main body of mutual cooperation

Question number & description	M					M	SD	F	p
	M1	M2	M3	M4	M5				
6.1. The main body of mutual cooperation is activists of cooperative association	4.43	6.00	4.75	6.29	5.43	5.38	1.40	2.306	.087
6.1.1. Producers	4.14	4.00	4.25	4.43	3.86	4.14	1.46	.131	.970

* p < .05

경영환경에 대한 조사결과는 Table 11과 같다. 로컬 푸드에 대한 관심도는 높으나 실천은 잘 안 되고 있다(4.72)고 평가하고 있는 데 부문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생-소 교류와 유통을 지원하는 중간조직은 협동조합(협동조직) 사무국(5.52)이며, 협동조합 연합체는 기여도가 낮은 것(3.14)으로 나타났다. 양 부문의 협동은 자생적으로 발전(5.79)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한, 양 부문의 협동은 생산-가공-유통-소비의 과정에서 계열화하고 있지만 그 중 협동이 되는 부문은 소비와 유통(5.10) 정도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유기농업과 협동조합 간의 협동 활동은 소비와 유통분야에서 이뤄진다’는 문항에서 p값이 .021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소비부분은 강하게 긍정을 하지만 정작 생산자와 유통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Table 11. Business environment

Question number & description	M					M	SD	F	p
	M1	M2	M3	M4	M5				
7.1. The interest in local food is high but not practical	5.29	5.00	4.25	4.86	4.14	4.72	1.77	.432	.784
7.2. The producer-consumer exchange and distribution is supported by cooperative association	5.00	6.00	5.00	5.86	5.71	5.52	1.62	.435	.782
7.3. The organic farming-cooperative association support system exists	5.57	5.25	5.00	5.14	3.86	4.93	1.60	1.65	.351
7.4. The source of developing organic farming-cooperative association is self-motivated	5.86	5.75	5.50	6.00	5.71	5.79	1.08	.135	.968
7.4.1. The start is self-motivated; now dependent on the outside	4.29	4.00	4.75	6.00	3.29	4.24	1.57	1.219	.329
7.5. The cooperation of organic farming-cooperative association is found in consumption and distribution parts	4.57	6.00	3.75	5.86	5.14	5.10	1.26	3.516	.021*

* $p < .05$

유기농업-협동조합이 협동을 하는 최종 지향점에 대한 조사결과는 Table 12와 같다. 지역 공동체의 유지 및 지속이 최종 지향점(5.72)이라는 것에 공통으로 동의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농가소득 증대(4.97)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Table 12. The cooperation goal of organic farming-cooperative association

Question number & description	M					M	SD	F	p
	M1	M2	M3	M4	M5				
8.1. The cooperation goal of organic farming-cooperative association is implement a local community	5.71	5.75	5.50	5.43	6.14	5.72	1.22	.308	.869
8.1.1. A rise in farm incomes	5.14	4.25	5.25	4.71	5.29	4.97	1.15	.678	.614

* $p < .05$

그 동안의 원주지역 유기농업과 협동조합 협동 활동에 대한 활동 평가는 Table 13과 같다. 유기농업 관점에서 볼 때 협동조합을 매개로 하는 협동 활동이 타 지역이나 관행농업

영농시스템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4.79),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정도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느슨하고 퇴행(4.10)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문항에서는 특히 생산부문에서 부정적 시각이 강했다. 유기농업과 협동조합이 협동하는 데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는 공히 협동의식의 빈약(5.55)을 들었다. 현재 유기농업과 협동조합이 협동하는 데 네트워크 운영에서 필요한 ‘특별한 리더십 또는 그런 지도자의 존재’에 대해서는 매우 부족하거나 부재 상태(5.33)로 평가하고 있다. 이 문항은 부문별로 표준편차 1.59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유기농업과 협동조합이 협동하는 데 따르는 큰 장점으로서는 사회적 가치 즉, 협동의식이 있어서 든든한 점(5.55)을 들었다. 그 결과 상생의 순환경제(5.03)가 달성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5.07) 되는 것을 경험하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유기농업과 협동조합(협동조직)의 협동의 핵심 개념(key word)이 지역 공동체(5.90)라는 점에 상당히 높고 고른 동의수준을 보여주었다. 또한, 협연(協緣)도 높게 평가(5.14)하였다.

한편 ‘유기농업과 협동조합 간의 협동 저해요인’ 문항과 유기농업과 협동조합 발전의 리더십 부재‘에 대한 문항에서는 p값이 공히 .026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이 문제에 대해 이에 대해 소비부분은 강하게 긍정을 하지만 가공부문이나 중간지원기관은 그러한 문제의식이 덜한 것으로 보인다.

Table 13. Evaluation

Question number & description	M					M	SD	F	p
	M1	M2	M3	M4	M5				
9.1. Different from other regions, because of co-op	4.00	5.50	4.50	5.00	5.14	4.79	1.66	.689	.607
9.1.1. Similar or equal	4.65	4.50	4.25	4.43	3.29	4.10	1.78	.464	.761
9.2. The obstacle of the cooperation of organic farming-cooperative association is a lack of the sense of cooperation	5.86	5.25	5.50	6.00	5.00	5.55	1.06	1.029	.412
9.2.1. A lack of management ability of each organization	4.43	4.00	4.75	5.71	4.71	4.79	1.40	1.249	.317
9.2.2. Poor philosophy of each participant	4.57	3.75	4.25	6.00	5.00	4.86	1.27	3.334	.026*
9.3. Leadership is in absence	5.57	4.00	5.75	6.71	4.57	5.41	1.59	3.345	.026*
9.3.1. here was in the past, but there is not at present	5.57	4.25	5.75	6.14	4.57	5.31	1.49	.811	.160
9.4. The advantage of cooperation in two parts is the existence of the sense of cooperation	5.57	5.50	5.00	5.29	6.14	5.55	1.15	.759	.562

Question number & description	M					M	SD	F	p
	M1	M2	M3	M4	M5				
9.4.1. Helpful to an increase in farm incomes	4.86	4.25	4.50	5.43	5.57	5.03	1.21	1.222	.328
9.4.2. Improvement in quality of lives of both producers and consumers	4.57	4.25	5.00	5.29	5.86	5.07	1.13	2.044	.120
9.5. The key of the cooperation in both parts is development of local community	5.70	5.25	5.75	5.86	6.14	5.90	0.94	.461	.764

* $p < .05$

원주지역 유기농업과 협동조합 협동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14와 같다. 이 부분은 가장 동의수준이 가장 높았다. 개선방향 6개 문항에 대해 평균 5.78이며, 부분 간 편차도 크지 않아 공감대가 잘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Table 14. A measure to improve cooperation in two parts

Question number & description	M					M	SD	F	p
	M1	M2	M3	M4	M5				
10.1. A measure to improve cooperation in two parts is cooperation between cooperative associations	6.57	6.50	6.25	6.14	5.43	6.00	1.20	1.492	.236
10.1.1. Democratic communication & leadership improvement	5.43	5.25	5.75	6.57	5.43	5.72	1.22	1.238	.321
10.1.2. Re-establishment and organization of production system	5.57	4.25	5.50	5.57	5.14	5.28	1.46	.639	.640.
10.1.3. Re-establishment and organization of production system	5.86	5.75	6.25	6.71	6.14	6.17	0.97	.926	.465
10.1.4. Activation of education and exchange	6.29	5.50	5.75	6.43	6.00	6.07	0.80	1.196	.338
10.1.5. Practice of life Life Thought	5.29	4.25	5.75	6.14	5.43	5.45	1.40	1.275	.307

* $p < .05$

2) 조사결과 평가

원주지역에서 현장전문가를 대상한 조사 결과 유기농업의 생산에 소비까지의 특성을 평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부문에서 가족농은 협동조합의 소비자들과 상생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가공은 주로 생협 계열의 영농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이 담당하고 있다. 유통은 주로 협동조합(생협, 영농조합법인 포함)이 담당하고 있다. 협동조합(협동조직)과 협동조합 매장, 협동조합 사무국은 유통, 판매, 생소교류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주도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 생·소 관계는 긴밀하고 우호적인 편이지만 이전에 비하면 그 정도가 조금씩 약화되고 있고, 소비자 조합원은 ‘가족건강을 가장 중시’하는 등 일반 소비자화 하는 추세에 있다.

한편 유기농업과 협동조합의 협동의 배경에는 ‘생명사상’의 실천과 유기농산물 유통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작용하였고, 지역 공동체의 유지·지속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높다. 이것은 구성원들이 지역의 협동사회경제시스템을 하나의 지역 공동체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원주지역 유기농업과 협동조합의 관계 분석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문제는 ‘지역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문제를 조정해 나갈 리더십(leadership)’의 존재 여부라고 파악된다. 최근 들어 인물 중심의 이념지향에서 사업 중심의 실용지향으로 리더십 기조가 전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전체 세부분석 지표 중 원주지역의 생산-소비 거래시스템은 상당히 특징적인 것이 많다. 특히, 다른 지역 또는 외국의 로컬푸드 시스템과 비교해 보면 더욱 그렇다. 원주지역에서는 ‘생명사상’이 유기농업 생산부문, 유기농산물 유통과 소비부문에서의 협동운동에 그대로 영향을 주었다. 우선 일반적인 사항은 유기농업 생산구조와 로컬 푸드 관심도가 높고, 정부의 육성제도에 대한 기대가 크며, 지역적 범위가 대도시 근교지역이라는 점, 거래품목이 채철 신선농축산물과 유기농산물인 점, 소비자 단위와 생산자-소비자 긴밀도가 비교적 높으며, 유기농산물 소비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반면에 원주지역 특징은 유기가공식품의 생산 주체가 협동조합 계열의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거나 관련 조직 내 농민이라는 점이다. 소비부문에서는 생산자-소비자 간의 거래관계가 어느 정도 긴밀하고, 농업인 지원이나 환경보전보다는 자기 가족의 건강을 가장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묵묵히 ‘생협 매장에서 믿고 구매하는 것 자체’를 생산자-소비자 협동의 요체로 생각하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대등하게 협동하는 관계임을 보여 주고 있지만, 점차 소비자중심주의가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요컨대, 원주지역의 유기농산물 거래 시스템의 특징은 생협과 영농조합법인이 생산과 소비의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유기농산물 거래나 교류의 장소가 도시의 생협 매장방문 위주이며, 대금 지불 방법도 후불 또는 직불이며, 도시 소비자가 생산자를 지원하는 방식은 ‘소비 그 자체’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주지역의 사례에서는 생산자들이 조직화 노력을 통해 농산물 납품자로서 협동조합과 하청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가치사슬(value chain)을 창출해 가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추동력은 과거에 비해 약화되고 있다. 그 이유는 생산자들이 고령화되고, 후계세대들의 경우 협동조합 정신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협동조합 유통구조의 다변화와 시장지향적인 유통경로 다양화와

같은 외부 요인에 편입되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관찰된다.

IV. 결 론

그 동안 원주지역에서 유기농업 운동, 협동조합 간 협동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유기농업의 생산-유통-소비의 경제순환과정에서 협동조합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양 부문의 관계 특성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파악한 실증연구가 많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원주지역에서 이 분야의 각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한 Delphi Technique 조사와 5명의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 인식과 정보를 정량화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유기농업과 협동조합은 각자의 존재 ‘원칙’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상호연관성이 매우 큰 부문이다. 유기농업의 관점에서 볼 때, 원주지역에서 유기농업과 협동조합 연관 28개 단체의 참여로 형성된 사회적 경제조직화는 순환적 경제활동을 추구할 수 있는 ‘보호된 시장’으로써의 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자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고, 지역 외부시장 의존도가 높은 현실 상황을 타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난 30여 년간 원주지역의 가족농 단위의 유기농업 생산자들은 스스로 조직화를 통해 ‘혁신자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유기농업 생산자들은 특정 소비자들의 ‘지원을 받는’(supported) 체제에서 스스로 ‘협동을 주도’(cooperative) 하며 ‘순환사회경제’를 위해 상당히 역동적으로 활동하였다. 생산자 조직화와 소비자 조직과의 연대, 개별조직 내부에서 각 사업을 수직적으로 계열화를 하고, 다른 비슷한 조직들과 수평적 협동 체제를 구축하였다. 최근 들어 개별 조직 내 수직적 계열화는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으나 개별조직들 간의 수평적 협동 활동은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답보상태에 있다. 유기농업부문과 협동조합부문은 서로 존재, 상생을 위해 양적 확장을 계속 하였지만, ‘순환과 협동’이라는 공통의 ‘원칙’에 접근하는 질적 심화를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둘째, 원주지역 유기농업과 협동조합 현장전문가 대상 델파이조사를 통해 양 부문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정량화 해 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과거에 양 부분이 지역 공동체 발전을 추구하면서 생명운동의 차원에서 협동 활동을 하던 모습이 최근 들어 다소 약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기농업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를 연결하는 주요 매개체는 협동조합(생협과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이다. 그래서 원주지역의 유기농업 경제활동은 협동조합을 매개로하는 ‘생산자-소비자 협동조합형’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유기농업 생산은 생산자들이 직접 생협이나 협동조직을 결성하였고, 유기농식품 생산 주체는 협동조합 계열의 농업회사법인 또는 농민들이다. 유통과 소비는 조직 내 계열

조직과 생협이 담당한다. 요컨대, 원주지역의 유기농업-협동조합 관계 특성은 “농업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가 지역에서 각자 체계적인 협동조직을 결성하여 협동조직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이를 매개로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경제활동에서 협동을 추구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유기농업과 협동조합 존재에 대한 ‘인식과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원주지역 양 부문 관계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외형상으로는 협동조합 간 협동을 통한 네트워크형 로컬푸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그것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로컬 푸드 소비율이 낮은 것이다. 그 이유는 대형 생협연합 중앙물류시스템에 관행적으로 깊이 편입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지역 내에서의 로컬 푸드시스템을 가동할 만한 기반이 취약해져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유기농산물 유통과 소비, 상호 교류 등을 협동조합이 주도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유기농업 생산자(조합원)-소비자(조합원) 사이의 긴밀도가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협동조합 간 협동 활동이 담보상태에 있다. 이는 시장 경쟁의 압박 등 외부환경 변화 하에서 각 참여 조직들이 지역 공동체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 실현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데 필요한 리더십의 약화 또는 분산이 한 요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두 가지이다. 첫째, 지역 내 유희 유기자 원순환형 작부체계의 확충과 그에 기반 한 품목 다변화 생산체계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원주지역 유기농산물의 품목들을 살펴보면, 유기축산물의 생산규모가 너무 빈약하다보니 외부 유기자재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생산되는 유기농산물도 대형 생협연합 중앙물류시스템에 부합되는 품목과 물량에 제약된다. 따라서 생산-소비 체계의 지역화를 위해 원주의 지역 협동조합들이 대형 생협연합의 중앙유통연합 의존도를 조금씩 낮춰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대신에 로컬 푸드 운동을 체계화하기 위해 지역 생산자 조직들이 주도하고 협동조직 간 협동 시스템에 기반 한 전문화 된 ‘로컬 푸드 유통 협동조합’의 활성화 또는 설립이 필요하다. 이로써 다품목 생산자의 조직화와 새로운 소비자 그룹의 형성으로 로컬 푸드 운동을 주도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순환과 협동이라는 양 부문의 ‘원칙’ 또는 ‘정체성’에 대한 성찰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명운동의 전통을 잇고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발전’을 추동할 수 있는 수평적 리더십의 재건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생산자-소비자 긴밀도를 높이고, 협동네트워크에서의 수평적 협동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학습과 교류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 아무리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각 참여 조직의 역량, 지향점 차이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역 내 협동 생산-협동 소비를 위한 협동조합 간 협동네트워크가 가동하는 ‘지역공동체협동농업모형’을 모색하는 것이 추후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본 연구 과정에서 Delphi 조사는 참여자가 소수이므로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

하였다. 그러나 그 참여자들의 의견으로 원주지역의 현실을 단정적으로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아무쪼록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여러 정량지표들이 앞으로 원주 지역 유기농업-협동조합 운동의 평가, 진로탐색 토론 시 참조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Submitted, August. 21, 2015 ; Revised, September. 5, 2015 ; Accepted, September. 16, 2015]

Reference

1. Choi, D. C. 2011. Social Economy Bloc and Community Cooperative Agriculture - A Case on Convergence of Organic Agriculture and Health Care Consumers Cooperative in Wonju, Korean Cooperative Research. 29(3): 1-26.
2. Cheryl, B. 2008. The Impacts of Local Markets: A Review of Research on Farmers Markets and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90(5): 1298-1302.
3. Feenstra, G. W. 2002. Local Food Systems and Sustainable Communities. American Journal of Alternative Agriculture, 12(1): 28-42.
4. Jung, J. Y., S. M. Son, and Y. H. Kim. 2001. Study on Activity, Type and Establishment of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in USA and Japan. Korea Journal Organic Agriculture, 9(1): 2-17.
5. Katherine L. A. 2007.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ATTRA.: 1-16.
6. Kwon, K. S. and D. C. Choi. 2008. Environment·Ecological Economy. KNOU Press. Korea. pp. 232-242.
7. Kim, Y. W. 2014. The Present and the Hope of the Local Life Community Movement. The Journal of Localitology. 12: 253-271.
8. Kim, S. N. 2012. A study on the consumer cooperative movements in mining areas by the relief and rehabilitation committee in Won-ju in 1970~1980s. Historical studies. 108: 343-409.
9. Kim, C. G. 2011. The Current State and Future Tasks for Korean Local Food. Korea Society. 12(1): 111-133.
10. Kim, H. J. 2008. A Study on Socio 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Poolmu Life Cooperative Producers. The Journal of Rural Society. 18: 43-89.
11. Nemoto. M. 2014. Improvement Strategy for Local Food Movement through Social Economy

- Network: Focused on Comparative- Case Study of Korea and Japan-.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18(1): 57-73.
12. Oh, M. I. 2010. Social Economy as a Counter Vision against Global Economy - Regarding 'Localization of Economy' and Local Economy Movement. The Journal of Localitology. 4: 83-118.
 13. Steven M. S. Food With a Farmer's Face: Community-Supported Agriculture in the United States, Geographical Review, 97(4): 550-564.
 14. Woo, Y. K. 2009. A Study on Community Development through Cooperation of Cooperatives. Korean Cooperative Research. 27(1): 29-53.
 15. Yoon, B. S. 2010.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lternative Agricultural Movements in Korea. The Journal of Rural Society. 20(1): 131-160.
 16. Yoon, B. S. and W. K. Song. 2014. The Strategy for Vitalizing Regional Cooperatives through the Local Food Movements. Industry Economy Research. 27: 55-75.
 17. <http://smallfarms.wsu.edu/ws-pdfs/WREP0135.pdf>